

##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의 관계: 성별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삼원 조절효과\*

권 석 민      최 종 안†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신체 이미지 만족감은 심리적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특히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신체 이미지 만족감의 영향력에서 성차는 기대보다 작으며, 신체 이미지 만족감 영향력의 성차는 여러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성별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체계적 차이가 발생하는지 탐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성인 남녀(N=543)를 대상으로 신체 이미지 만족감, 자아존중감, 우울, 그리고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이전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신체 이미지 만족감은 자아존중감과 정적 관계를, 우울감과는 부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본 연구에서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우울감 간의 관계가 성별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유의하게 조절되는 삼원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주관적 SES가 높을수록 신체 이미지 만족과 자아존중감(혹은 우울감) 간의 정적(혹은 부적) 관련성이 더 강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신체 이미지 만족이 웰빙에 미치는 효과가 성별뿐 아니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주요어 : 신체 이미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자아존중감, 우울, 성차

\* 이 논문은 2024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교신저자: 최종안,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E-mail: jonganchoi@kangwon.ac.kr



Copyright © 2025,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여성들은 본인의 신체 이미지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실제, 독일에서 진행된 일반 인구 조사(N=1,338)에 따르면 여성들이 외모의 중요성을 5점 만점 평균 3.20점(남성: 2.91)으로 평가했으며, 놀랍게도, 이상적 외모를 위해 하루 평균 1.04시간(남성: 0.79)을 사용하고 기대수명을 1.64년(남성: 1.52)까지 기꺼이 줄일 수 있다고 답하였다(Quittkat et al., 2019). 이는 여성들이 본인의 신체 이미지에 얼마나 큰 주의와 관심을 주는지를 알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런데, 여성의 신체 이미지는 자기 만족감을 넘어 실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인의 신체 이미지에 만족하는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수면(Rosenbaum et al., 2024), 연애 및 결혼 관계(Meltzer & McNulty, 2010; Stiles et al., 2023), 건강 행동(Becker et al., 2017)에서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나, 신체 이미지 만족도는 여성들에게 유의한 정서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상에서 자신의 신체적 이미지에 대한 불만을 경험할 때마다,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ala et al., 2021). 종합해보면, 신체 이미지는 여성들의 웰빙, 특히 심리적 웰빙에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신체 이미지 만족감은 개인의 심리적 웰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특히 이전 연구들은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유의한 효과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했다. 초기 연구들은 주로 백인 여성 표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결과를 일관되게 보고하였다(Mable et al., 1986). 이러한 경향은 문화적 배경을 달리한 표본에서도 확인되었다. 예컨대 한국 청소년

3,65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신체 이미지 만족감은 자아존중감과 우울감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You et al., 2017).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 간의 유효한 관련성은 종단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에서도 지지되었다. 특히, 종단 연구들은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심리적 웰빙의 선행 변수임을 보여줬다(Paxton et al., 2006; Sharpe et al., 2018; Tiggemann, 2005). 예를 들어, Tiggemann (2005)은 청소년 대상으로 수집된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이전 시점 신체 이미지 불만족은 이후 시점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지만, 그 반대 즉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은 이후 시점의 신체 이미지 만족감을 설명하지 못함을 보여줬다. 이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신체 이미지 불만족은 우울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을 뿐 아니라(Marsella et al., 1981),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에서는 신체 이미지 불만족이 중증 우울증 발병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Stice et al., 2000).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심리적 웰빙, 특히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다양한 연령과 문화권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었으나, 연구 대상이 여성에게 편중된 경향을 보여왔다(MacNeill et al., 2017; Quittkat et al., 2019). 기존 연구들은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련성이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남을 보고하였으며(Lerner et al., 1973; Thompson & Thompson, 1986; Wichstrøm & von Soest, 2016),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자아존중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Allgood-Merten et al., 1990; Fredrickson &

Roberts, 1997; Polce-Lynch et al., 1998). 실제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신체 이미지 불만족과 자아존중감 간의 부정적 관련이 여성 집단에서 더 강하게 보고되었다(Oney et al., 2011).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우울감의 관계 또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보고되었다. 영국의 대규모 종단 연구에서는 신체 이미지 불만족이 여아의 우울감 발현 위험을 약 두 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Blundell et al., 2024), 청소년 표본에서도 체중과 체형에 대한 걱정이 이후 정서적 문제를 예측하는 것은 여학생에게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Hoffmann et al., 2018). 이러한 결과들은 수렴적으로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여성의 심리적 웰빙에 특히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 간의 관련성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에 성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가설 1.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는 효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여성 집단에서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가설 1-1.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정적 효과는 여성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2.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우울감을 예측하는 부적 효과는 여성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심리적 웰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지지되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에 유의한 성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먼저,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유의하게 나타나며, 그 강도에서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Davison & McCabe, 2006; van den Berg et al., 2010). van den Berg와 동료들(2010)은 청소년과 성인을 모두 포함한 표본을 대상으로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는데, 이 둘 간의 상관에서 유의한 성차는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종단 자료를 활용한 Mellor 등(2010)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이 관찰되었는데, 신체 이미지 불만족이 31세 미만 여성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했으나 남성과 31세 이상 여성에게서는 유의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Mintz와 Betz(1986)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자아존중감의 성차가 체중을 통제하면 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우울감에 관한 이전 연구에서도 성차에 대한 혼재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신체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자기 평정 혹은 이상적 신체 이미지와 현재 신체 이미지 인식 간의 큰 괴리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우울감을 유발하였고, 성별에 따라 그 정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avison & McCabe, 2006; Mintz & Betz, 1986; Solomon-Krakus et al., 2017).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우울감 간의 관련성이 오히려 남성 참가자들에게만 유의하게 나타나기도 했다(McCaulay et al., 1988).

앞서 소개된 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심리적 웰빙, 특히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가

여성들에게서 언제나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여성의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다른 요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효과의 성차를 조절하는 숨겨진 조절 변수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인종과 국가를 조절 변수로 가정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일관된 결과를 발견하지는 못했다(Gillen & Lefkowitz, 2012; Ladd et al., 2022; Miller et al., 2000). 예컨대 BMI를 통제한 연구에서는 백인 여성이 아시아 및 흑인 여성보다 외모에 대한 행복감이 낮게 보고되었으나, 메타분석에서는 인종 간 차이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Grabe & Hyde, 2006; Roberts et al., 2006). 또한 세계 10개 지역 여성 7,43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미국 여성이 다른 지역 여성보다 더 큰 신체 불만족을 보고했으나, 그 효과 크기는 매우 작아 대규모 표본에 의한 과대추정 가능성이 지적되었다(Swami et al., 2010). 예상과 달리, 문화나 국가가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성차를 조절하지 못한 것은 서구화가 이미 세계적 현상이 되어 지역 간 혹은 문화 간 차이가 유명무실해진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여성들의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한 사회 내에서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사회경제적 지위 역할을 탐색해보았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신체 이미지와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McLaren(2007)은 고도성장 국가의 고 사회경제적 지위 여성에게서 높은 체중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빈번하게 나타남을 제시하며, 신체에 대한 평가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van den Berg와 동료들(2010)은 여성 표본에서 부모의 교육 수준이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여성들일수록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가 더 커지는 일부 양상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2-1. 자아존중감에 대한 신체 이미지 만족감의 정적 효과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여성보다 높은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2. 우울감에 대한 신체 이미지 만족감의 부적 효과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여성보다 높은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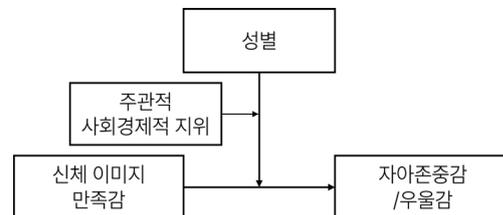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 본 연구

본 연구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와 그 성차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지 체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신체 이미지 만족감은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련성은 여성들에게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 간의 관련성이 여성 응답자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가설 1). 또한, 이러한 성차가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구체적으로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지각하는 여성일수록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 간의 관계가 더욱 밀접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가설 2). 주요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 성인 남녀 543명으로부터 수집된 신체 이미지 만족감, 자아존중감, 우울감,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측정치를 활용하여,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을 결과 변수로, 신체 이미지 만족감을 예측 변수로, 그리고 성별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조절 변수로 포함하는 조절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 방 법

### 연구 참가자

본 연구는 대학 기관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서울 소재 대학교의 종단 연구 자료 중 일부를 활용하였다(IRB No. 1903/002-005).

구체적으로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543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종단 자료 중 본 연구의 관심 변수(즉, 신체 이미지 만족감, 자아존중감, 우울감, 성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모두를 포함한 한 시점 자료를 활용하였다. 결측과 이상치로 인해 분석에 제외된 참가자는 없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설문 시점 기준으로 29.14세( $SD = 3.75$ )였으며, 남성이 284명(52.3%), 여성이 259명(47.7%)으로 총 543명이었다. 측정 시점을 기준으로 연애 중인 참가자 219(40%)명, 기혼자 141명(26%), 독신 183명(33%)이었다.

###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신체 이미지 만족감,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자아존중감,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다.

#### 신체 이미지 만족감

신체 이미지 만족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7점 척도(1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7 = “매우 만족한다”)형식의 단일 문항(예: “전반적으로 본인의 신체 이미지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을 사용하였다. 신체 이미지를 측정하는 다양한 도구가 존재하나 신체 이미지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신체 이미지 감각의 성차를 고려하기 위해 신체 이미지 만족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남녀에게서 나타나는 신체 이미지 감각의 차이(김완석, 2007; Halliwell & Dittmar, 2003)는 만족감을 통해 동등한 수준으로 수렴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측정이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신체 이미지를 전체적이며 기능적으로 지각하고 여성은 부분적이며 과시적으로 지각한다는 점

에서 신체 부위 마다 만족감을 평가한 평균값을 사용하는 기존의 척도는 성별의 차이를 과소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체 이미지 만족감을 단일 문항을 통해 측정하는 것은 신체 이미지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상이한 인식을 포괄적으로 포착하고 만족감으로 수렴시킬 수 있어 효과적인 측정치라 할 수 있다. 연구 참가자들의 평균 신체 이미지 만족감은 4.22( $SD = 1.49$ )였다.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 MacArthur 사다리 척도를 사용하였다(Adler et al., 2000). 본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를 10개의 층으로 나누었을 때 자신이 어느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하였다. 맨 위층은 상류층(예: 10 =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교육을 많이 받고, 가장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맨 아래층은 하류층(예: 1 =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교육을 적게 받고, 가장 나쁜 직업을 가졌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을 나타낸다. 본 연구 참가자들의 평균 주관적 SES는 10단계 중 6.90( $SD = 1.51$ )였다.

###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89)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형식의 총 10문항(예: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비교했을 때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 믿는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자아존중감 문항들의 평균값이 이용되었고 평균값 계산에 앞서 5개

의 역문항을 역채점하여 평균값이 클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했다. 자아존중감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915이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평균 자아존중감은 5.44( $SD = 1.05$ )였다.

### 우울감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한 역학 연구 센터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조맹제, 김계희(1993)가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울감 척도는 4점 척도(0 = “극히 드물다 1일 이하”, 3 = “대부분 그랬다 5-7일”) 형식의 총 20문항(예: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개의 자아존중감 문항들의 평균값이 이용되었고 평균값 계산에 앞서 4개의 역문항을 역채점하여 평균값이 클수록 우울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했다. 우울감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923이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평균 우울감은 .66( $SD = .49$ )이었다.

### 결 과

기술통계분석 결과 및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를 남녀로 구분하여 표 1에 제시했다. 이전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신체 이미지 만족감은 심리적 웰빙 지표들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신체 이미지 만족감은 자아존중감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전체:  $r = .416$  / 남:  $r = .427$  / 여:  $r = .415$ ), 우울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전체:  $r = -.386$  / 남:  $r =$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성별 별 상관관계

변인	1	2	3	4	M	SD
1. 신체 이미지 만족감	-	.158*	.415***	-.397***	4.26	1.47
2.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195***	-	.284***	-.212***	6.95	1.38
3. 자아존중감	.427***	.353***	-	-.718***	5.33	1.00
4. 우울	-.391***	-.310***	-.743***	-	.73	.49
<i>M</i>	4.18	6.85	5.54	.60	-	N=259
<i>SD</i>	1.51	1.61	1.09	.48	N=284	-

주. 대각선을 기준으로 위는 여성(명), 아래는 남성(명)에 해당.

\* $p < .05$ , \*\* $p < .01$ , \*\*\* $p < .001$

-.391 / 여:  $r = -.397$ ).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해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을 결과 변수로, 신체 이미지 만족감을 예측 변수로, 그리고 성별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조절 변수로 하는 조절 모형 분석을 시행했다. 분석에는 SPSS PROCESS macro(Model 3; Hayes, 2013)를 활용했다. 먼저, 자아존중감을 결과 변수로 포함한 조절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신체 이미지 만족감( $\beta = .369, p < .001$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beta = .271, p < .001$ ) 그리고 성별( $\beta = -.270, p < .001$ )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높을수록,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각할수록, 그리고 여성에 비해 남성 응답자가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유의한 이원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성별 간의 유의한 이원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그 상호작용이 함께 고려된 본 연구에서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자아존

중감 간의 긍정적 관련성의 정도에서 남녀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가설 1-1 기각). 성별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이원상호작용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예상했던 신체 이미지 만족감, 성별, 그리고 주관적 사회경제적 간의 유의미한 삼원상호작용이 나타났다,  $\beta = .176, F(1, 535) = 5.587, p = .019$ . 이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의 정도가 성별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상이함을 의미한다.

삼원상호작용의 세부적인 양상을 탐색하기 위해, 남녀로 구분하여 이원 상호작용과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 관심사인 여성에서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달라지는 추세가 관찰되었다( $\beta = .045, SE = .027, p = .092$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지각하는 여성보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지각하는 여성에게서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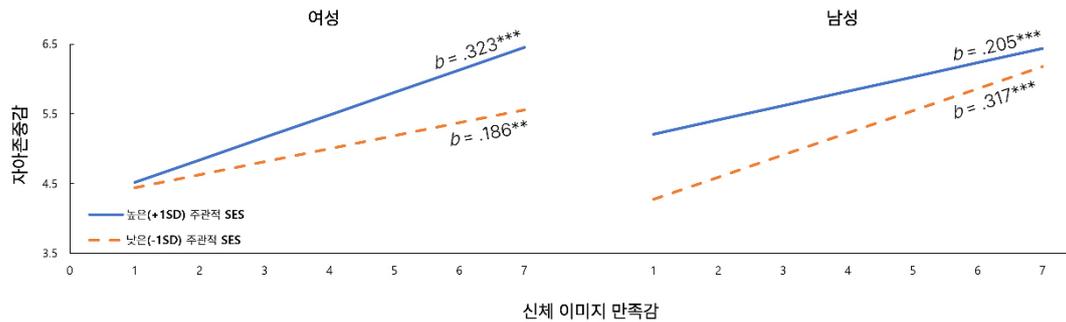
표 2. 자아존중감에 대한 삼원상호작용 분석과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변인 : 자아존중감					$R^2 = .258$	
예측변인	<i>b</i>	<i>SE</i>	LLCI	ULCI		
신체 이미지 만족감(A)	.261***	.037	.188	.333		
성별(B)	-.284***	.080	-.441	-.128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C)	.190***	.034	.122	.258		
A * B	-.006	.054	-.112	.099		
A * C	-.037	.021	-.079	.004		
B * C	-.019	.054	-.126	.088		
A * B * C	.083*	.035	.014	.151		

단순 기울기 분석								
		B	C	<i>b</i>	<i>SE</i>	<i>t</i>	LLCI	ULCI
자아존중감	남성		-1SD	.317***	.046	6.928	.227	.407
			M	.261***	.037	7.060	.188	.333
			+1SD	.205***	.052	3.955	.103	.306
	여성		-1SD	.186**	.059	3.150	.070	.302
			M	.254***	.039	6.476	.177	.331
			+1SD	.323***	.055	5.814	.214	.431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성별 더미(남성=0, 여성=1). 모든 예측변인은 평균중심화. LLCI: 95%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 ULCI: 95% 신뢰구간에서의 상한 값.



주.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2. 자아존중감에 대한 단순 기울기 그래프

(+1 SD:  $\beta = .456$  vs. -1 SD:  $\beta = .263$ ). 이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자아존중감 간의 긍정적 관련성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각하는 여성들에게서 더 두드러질 것이라는 예상

을 지지하는 결과이다(가설 2-1 지지).

추가적으로, 남성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이원상호작용과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시행하였다. 남성 응답자들에게서 이원상호작용 경향성이 발견되었는데( $b = -.037, SE = .022, p = .090$ ), 이는 여성 응답자들과는 반대의 양상이었다.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 높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각하는 남성보다 낮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각하는 남성에게서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더 큰 것을 발견했다(+1 SD:  $\beta = .290$  vs. -1 SD:  $\beta = .448$ ). 남성 응답자에서 관찰된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

위 간의 상호작용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에 대해서는 종합 논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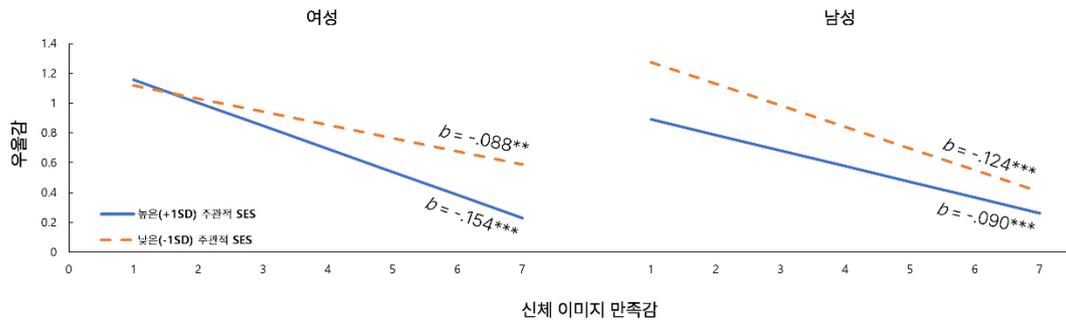
이어서 결과 변수를 우울감으로 투입하여 동일한 분석을 진행했다. 주요 결과는 표 3을 통해 제시하였다. 먼저, 우울감에 대한 신체 이미지 만족감( $\beta = -.327, p < .001$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beta = -.224, p < .001$ ) 그리고 성별( $\beta = .334, p < .001$ )의 유의한 주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낮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남성에 비해 여성 응답자들이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경험함을 보여준다. 우울감에서도

표 3. 우울감에 대한 삼원상호작용 분석과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변인 : 우울감		$R^2 = .217$					
예측변인	$b$	SE	LLCI	ULCI			
신체 이미지 만족감(A)	-.107***	.018	-.142	-.072			
성별(B)	.163***	.038	.088	.237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C)	-.073***	.016	-.105	-.041			
A * B	-.014	.026	-.065	.036			
A * C	.011	.010	-.009	.031			
B * C	.014	.026	-.037	.065			
A * B * C	-.033*	.017	-.066	-.001			
단순 기울기 분석							
	B	C	$b$	SE	$t$	LLCI	ULCI
우울감	남성	-1SD	-.124***	.022	-5.702	-.167	-.081
		M	-.107***	.018	-6.089	-.141	-.072
		+1SD	-.090***	.025	-3.653	-.138	-.042
	여성	-1SD	-.088**	.028	-3.146	-.144	-.033
		M	-.121***	.019	-6.501	-.158	-.085
		+1SD	-.154***	.026	-5.853	-.206	-.103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성별 더미(남성=0, 여성=1). 모든 예측변인은 평균중심화.

LLCI: 95%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 ULCI: 95% 신뢰구간에서의 상한 값.



주.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3. 우울감에 대한 단순 기울기 그래프

성별과 신체 이미지 만족감 간의 유의한 이원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그 상호작용을 모두 포함한 본 연구에서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우울감 간의 부정적 관련성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더 두드러지는 성차를 확인할 수 없었다(가설 1-2 기각).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체 이미지 만족감, 그리고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별의 이원상호작용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앞선 자아존중감 분석과 마찬가지로, 우울감에서도 신체 이미지 만족감, 성별, 그리고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유의한 삼원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beta = -.153$ ,  $F(1, 535) = 4.005$ ,  $p = .046$ .

발견된 삼원상호작용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여 이원상호작용과 단순 기울기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먼저, 여성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간에 상호작용 경향성이 나타났다( $b = -.022$ ,  $SE = .013$ ,  $p = .103$ ).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지각하는 여성에 비해 스스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인식하는 여성에게서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1 SD:  $\beta = -.472$  vs. -1 SD:  $\beta = -.270$ ). 이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지각하는 여성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과 부합하는 결과이다(가설 2-2 지지). 다음으로 남성 응답자들에게서도 이원상호작용 경향성이 발견되었는데( $b = .011$ ,  $SE = .010$ ,  $p = .257$ ), 이는 여성 응답자 결과와는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 낮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각하는 남성에 비해 높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각하는 남성에게서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작은 것을 관찰하였다(+1 SD:  $\beta = -.275$  vs. -1 SD:  $\beta = -.379$ ).

## 논 의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를 탐구한 이전 연구들에서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효과가 남성보

다 여성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결과와 남녀 간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혼재되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일관된 결과가 숨겨진 경계 조건(boundary condition)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 이미지 만족감은 자아존중감과 우울감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높은 참가자들일수록 자아존중감은 높고, 우울감은 낮게 보고하였다.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는 국내에서도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지만(맹성준, 한창근, 2017; 박민향, 한현석, 2022; 신혜숙, 백승남, 2017; 이병혜, 2009), 본 연구는 충분한 크기의 2-30대 성인 표본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재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을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심리적 강점과 약점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단순 상관 계수값을 비교한 결과,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우울감 간 관련성 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r_{자아존중감}| = .416$  vs  $|r_{우울감}| = .386$ ,  $Z = 1.057$ ,  $p = .145$ ). 즉, 신체 이미지 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비슷한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성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과 우울감 모두에서 신체 이미지 만족감과 성별 간의 유의한 이원상호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신체 이미지 만족도의 영향이 여성에게 보다 두드러진다는 이전 연구(Allgood-Merten et al., 1990; Fredrickson &

Roberts, 1997; Lerner et al., 1973; Polce-Lynch et al., 1998; Thompson & Thompson, 1986; Wichstrøm & von Soest, 2016)와는 배치되는 결과로서 단순히 신체 이미지 만족도의 효과가 성별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Davison & McCabe, 2006; van den Berg et al., 2010; Wilcox, 1997). 마지막으로,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동시에 조절 변수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즉, 자아존중감과 우울감 모두에서 신체 이미지 만족감 × 성별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자아존중감(혹은 우울감)에 미치는 정적 영향(혹은 부적 영향)이 강해지는데 반해, 남성의 경우에는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이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의 효과가 단순히 성별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성별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호작용에 의해 달라짐을 보여주는 최초의 경험적 증거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신체 이미지 만족감의 성차 효과가 일관되지 않게 보고된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 연구 참가자들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강하게, 혹은 그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연구에 참여한 다수가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지각하는 경우라면 신체적 이미지 만족감이 남성보다 여성의 심리적 웰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기 쉽고, 반대로 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각하는 개인들이 연구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체 이미지 만족감의 영향력에 남녀 간 차이가 없거나 혹은 오히려

남성에게서 더 큰 결과를 보이기 쉽다. 따라서, 신체적 만족감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효과와 그 성차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 효과를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연구 표본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인식하는 여성들에게 신체적 이미지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원인을 본 연구 결과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규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관련 연구에서 가능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회적 사다리에서 개인이 어디에 위치한다고 느끼는지에 관한 인식이며(Kraus et al., 2009), 단순한 자원 보유량을 넘어 자기개념의 핵심적 일부를 형성한다(Kraus et al., 2012).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각하는 개인일수록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통제하려는 주체성(agency)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ndura, 2006; Bem, 1972; Boileau et al., 2024; Gecas, 1982; Hogan, 1982; Mahadevan et al., 2021; Wylie, 1974). 그런데, 여성에게 신체적 매력은 주체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신체적 매력을 높이는 여성일수록 자기주장이 강하고(Blake et al., 2020), 직무 관련 자기효능감이 높으며(Nistor & Stanciu, 2017), 가정 내 주도권을 보인다(Li et al., 2022). 따라서,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지각하는 여성들은 긍정적 신체 이미지를 주체성의 신호로 간주하고(Krems et al., 2022), 신체 이미지 만족을 자기 주체성 충족, 그리고 신체 이미지 불만족을 자기 정체성 위협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Festinger, 1957; Swann, 1983). 다시 말해,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지각하는 여성에게 신체 이미지 만족은 자기 주체성을 확

인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동했을 수 있다. 이러한 가설적 설명은 후속 연구에서, 여성의 심리적 웰빙에 나타나는 신체 이미지 만족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간 상호작용이 실제로 자기 주체성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직접 검증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확인될 필요가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신체 이미지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여성들과는 달리, 신체 이미지 만족도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지각하는 남성들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흥미롭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로, 심리적 배후 기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남성의 신체 이미지가 여성과 달리 전체론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으로 이해된다는 선행 연구(Franzoi et al., 1989; Halliwell & Dittmar, 2003)에서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본인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지각하는 남성은 지위 경쟁에서 불리함을 자각하고, 이에 따라 신체적 매력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스스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지각하는 남성들은 신체 이미지 만족을 단순한 외모 평가가 아닌 자기 자원의 핵심적 지표로 간주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남성 집단에서 관찰된 신체 이미지 만족도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상호작용을 재검증하고, 그 기제를 체계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신체 이미지 만족도가 남녀의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이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남을 보여줌으로써, 신체 이미지 연구 분야에서 그동안 알려지 않았던 새로운 조절 변수를 밝혀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새로운 영역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지위 연구 영역의 확장에도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신체 이미지 만족감을 측정하기 위해 단일 문항 척도를 사용하여 신뢰성과 설명력의 한계가 존재한다. 물론 삶의 만족감(Cheung & Lucas, 2014; Gnambs & Buntins, 2017; Lucas & Donnellan, 2012), 직무 만족감(Nagy, 2002), 관계 만족도(Fulop et al., 2020)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단일 문항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성이 검증된 바 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항·다요인 측정을 통해 신뢰성과 설명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만을 고려했을 뿐,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최근 연구(Laurin et al., 2024; Tan et al., 2020)에 따르면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상관은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r_{meta}=.32$ ,  $r=.11\sim.26$ ).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 효과가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신체 이미지 만족도의 효과에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연구 표본은 동대학교의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교육 수준이 동일한 한계를 갖는다. 다만, 가계 소득 측정치<sup>1)</sup>

가 있어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대신 가계 소득을 조절 변수로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존감( $b = .016$ ,  $SE = .019$ ,  $F(1, 535) = .698$ ,  $p = .404$ )과 우울감( $b = -.017$ ,  $SE = .009$ ,  $F(1, 535) = 3.69$ ,  $p = .055$ ) 모두에서 신체 이미지 만족감  $\times$  성별  $\times$  가계 소득의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교육 수준과 직업군을 고려하지 않은 제한적 분석 결과로, 추후 연구에서는 학력, 직업, 소득이 다양한 연구 표본을 대상으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 효과를 통합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상관 연구로서의 방법론적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회귀분석만으로는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하며, 구체적인 심리적 기제 역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체 이미지 만족감을 조작하는 실험 연구를 통해 자존감과 우울감에 대한 효과와 변인들 간의 엄밀한 인과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결론

본 연구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신체 이미지 만족감이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밝혀냈다. 신체 이미지 만족감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5=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7=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8=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9=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0=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1=1,000만원 이상)로 응답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가계 소득은 7.50(SD= 2.93)이었다.

1) 연구 참가자들은 세전 월 평균 가구 소득을 1부터 11까지 100만원 단위(1=100만 원 미만, 2=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지각하는 여성들의 심리적 웰빙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신체 이미지 불만족이 특히 상위 계층 여성들의 심리적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화장품과 미용 시술과 같은 신체 매력 관련 상품 소비 역시 상위 계층 여성의 심리적 적응/부적응과 밀접한 연결될 가능성 또한 제안한다. 따라서, 향후 신체 이미지 만족감의 영향력과 신체 이미지 인식 개입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에서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주요한 변수로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완석 (2007). 전반적 신체존중감 척도 (KOBES): 개발 및 성차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231-253.  
<https://doi.org/10.18205/kpa.2007.12.2.009>
- 맹성준, 한창근 (2017).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왜곡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4), 238-268.
- 박민향, 한헌석 (2022). 여대생의 신체상 및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Crisisonomy*, 18(12), 123-136.
- 신혜숙, 백승남 (2003). 정상체중과 과체중 여대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관한 연구.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4), 332-338.
- 이병혜 (2009). 매스미디어의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 우울에 대한 영향: 여대생들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3(3), 166-204.
- 조맹제, 김계희 (1993). 주요우울증환자 예비평가에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2(3), 381-399.
- Adler, N. E., Epel, E. S., Castellazzo, G., &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6), 586.
- Allgood-Merten, B., Lewinsohn, P. M., & Hops, H. (1990). Sex differences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1), 55.
- Bandura, A. (2006). Toward a psychology of human agenc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2), 164 · 180.
- Becker, C. B., Verzijl, C. L., Kilpela, L. S., Wilfred, S. A., & Stewart, T. (2019). *Body image in adult women: Associations with health behaviors, quality of life, and functional impairment.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4(11), 1536-1547.  
<https://doi.org/10.1177/1359105317710815>
- Bem, D. J. (1972). Self-perception theory.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6, pp. 1-62). Academic Press.
- Blake, K. R., Brooks, R., Arthur, L. C., & Denson, T. F. (2020). In the context of romantic attraction, beautification can increase assertiveness in women. *PLOS ONE*, 15(3), e0229162.
- Blundell, E., De Stavola, B. L., Kellock, M. D., Kelly, Y., Lewis, G., McMunn, A., ... & Solmi, F. (2024). Longitudinal pathways between childhood BMI, body dissatisfaction,

- and adolescent depression: An observational study using the UK Millennium Cohort Study. *The Lancet Psychiatry*, 11(1), 47-55.
- Boileau, L. L. A., Gebauer, J. E., Bleidorn, W., Rentfrow, P. J., Potter, J., & Gosling, S. D. (2024). Socioeconomic status differences in agentic and communal self-concepts: Insights from 6 million people across 133 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Cash, T. F., & Smolak, L. (Eds.). (2011). *Body image: A handbook of science, practice, and prevention* (2nd ed.). Guilford Press.
- Cheung, F., & Lucas, R. E. (2014). Assessing the validity of single-item life satisfaction measures: Results from three large samples. *Quality of Life Research*, 23, 2809-2818.
- Davison, T. E., & McCabe, M. P. (2006). Adolescent body image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6(1), 15-30.
-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Row, Peterson.
- Fitzsimmons-Craft, E. E., Bardone-Cone, A. M., Wonderlich, S. A., Crosby, R. D., Engel, S. G., & Bulik, C. M. (2015).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comparisons, body surveillance, and body dissatisfaction in the natural environment. *Behavior Therapy*, 46(2), 257-271. <https://doi.org/10.1016/j.beth.2014.09.006>
- Franzoi, S. L., Kessenich, J. J., & Sugrue, P. A. (1989). Gender differences in the experience of body awareness: An experiential sampling study. *Sex Roles*, 21, 499-515.
- Fredrickson, B. L., & Roberts, T. A.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2), 173-206.
- Fülöp, F., Bóthe, B., Gál, É., Cachia, J. Y. A., Demetrovics, Z., & Orosz, G. (2020). A two-study validation of a single-item measure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RAS-1. *Current Psychology*, 1-13.
- Gecas, V. (1982). The self-concept. *Annual Review of Sociology*, 8, 1-33.
- Gillen, M. M., & Lefkowitz, E. S. (2012). Gender and racial/ethnic differences in body image development among college students. *Body Image*, 9(1), 126-130.
- Gnamb, T., & Buntins, K. (2017). The measurement of variability and change in life satisfaction: A comparison of single-item and multi-item instrument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33(4), 224-238. <https://doi.org/10.1027/1015-5759/a000414>
- Grabe, S., & Hyde, J. S. (2006). Ethnicity and body dissatisfaction among women in the United State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2(4), 622.
- Grabe, S., Ward, L. M., & Hyde, J. S. (2008). The role of the media in body image concerns among women: A meta-analysis of experimental and correlatio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34(3), 460-476. <https://doi.org/10.1037/0033-2909.134.3.460>
- Halliwel, E., & Dittmar, H. (2003).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women's and men's body image concerns and their attitudes toward aging. *Sex Roles*, 49, 675-684.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1st ed.). Guilford Press.
- Hoffmann, S., Cortés-García, L., & Warschburger, P. (2018). Weight/shape and muscularity concerns and emotional problems in adolescent boys and girls: A cross-lagged panel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68, 70-77.
- Hogan, R. (1982). A socioanalytic theory of personality. In M. M. Page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pp. 55-89).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Kraus, M. W., Piff, P. K., & Keltner, D. (2009). Social class, sense of control, and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6), 992-1004.
- Kraus, M. W., Piff, P. K., Mendoza-Denton, R., Rheinschmidt, M. L., & Keltner, D. (2012). Social class, solipsism, and contextualism: How the rich are different from the poor. *Psychological Review*, 119(3), 546-572.
- Krems, J. A., Merrie, L. A., Short, V., Duarte, K., Rodriguez, N. N., French, J. E., ... & Byrd-Craven, J. (2022). Third-party perceptions of male and female status: Male physical strength and female physical attractiveness cue high status. *Frontiers in Ecology and Evolution*, 10, 860797.
- Ladd, B. A., Maheux, A. J., Roberts, S. R., & Choukas-Bradley, S. (2022). Black adolescents' appearance concerns, depressive symptoms, and self-objectification: Exploring the roles of gender and ethnic-racial identity commitment. *Body Image*, 43, 314-325.
- Laurin, K., Engstrom, H. R., Alic, A., & Tracy, J. L. (2024). Is being elite the same as living an easy life? Two distinct ways of experiencing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Lerner, R. M., Karabenick, S. A., & Stuart, J. L. (1973). Relations among physical attractiveness, body attitudes, and self-concept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Psychology*, 85(1), 119-129.
- Li, Z. (2022). Physical attractiveness and women's intra-household bargaining power. *Frontiers in Psychology*, 13, 853083.
- Lucas, R. E., & Donnellan, M. B. (2012). Estimating the reliability of single-item life satisfaction measures: Results from four national panel stud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5, 323-331.
- Mable, H. M., Balance, W. D., & Galgan, R. J. (1986). Body-image distortion and dissatisfaction in university studen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3(2), 907-911.
- MacNeill, L. P., Best, L. A., & Davis, L. L. (2017). The role of personality in body image dissatisfaction and disordered eating: Discrepancies between men and women. *Journal of Eating Disorders*, 5(1), 44.
- Mahadevan, N., Gregg, A. P., & Sedikides, C. (2021). Self-esteem as a hierometer: Sociometric status is a more potent and proximate predictor of self-esteem than socioeconomic statu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50(12), 2613.
- Marsella, A. J., Shizuru, L., Brennan, J., & Kameoka, V. (1981). Depression and body image satisfac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 Psychology*, 12(3), 360-371.  
<https://doi.org/10.1177/0022022181123007>
- McCaulay, M., Mintz, L., & Glenn, A. A. (1988). Body image, self-esteem, and depression-proneness: Closing the gender gap. *Sex Roles*, 18, 381-391.
- McLaren, L. (2007). Socioeconomic status and obesity. *Epidemiologic Reviews*, 29(1), 29-48.
- Mellor, D., Fuller-Tyszkiewicz, M., McCabe, M. P., & Ricciardelli, L. A. (2010). Body image and self-esteem across age and gender: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Sex Roles*, 63, 672-681.
- Miller, K. J., Gleaves, D. H., Hirsch, T. G., Green, B. A., Snow, A. C., & Corbett, C. C. (2000). Comparisons of body image dimensions by race/ethnicity and gender in a university pop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7(3), 310-316.
- Meltzer, A. L., & McNulty, J. K. (2010). *Body image and marital satisfaction: Evidence for the mediating role of sexual frequency and sexual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4(2), 156-164. <https://doi.org/10.1037/a0019063>
- Mintz, L. B., & Betz, N. E. (1986). Sex differences in the nature, realism, and correlates of body image. *Sex Roles*, 15, 185-195.
- Moradi, B., & Huang, Y.-P. (2008). Objectification theory and psychology of women: A decade of advances and future direction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2(4), 377-398.  
<https://doi.org/10.1111/j.1471-6402.2008.00452.x>
- Nagy, M. S. (2002). Using a single-item approach to measure facet job satisfactio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5(1), 77-86.
- Nistor, N., & Stanciu, I. D. (2017). "Being sexy" and the labor market: Self-objectification in job search related social network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9, 43-53.
- Oney, C. N., Cole, E. R., & Sellers, R. M. (2011). Racial identity and gender as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image and self-esteem for African Americans. *Sex Roles*, 65(7), 619-631.
- Paxton, S. J., Neumark-Sztainer, D., Hannan, P. J., & Eisenberg, M. E. (2006). Body dissatisfaction prospectively predicts depressive mood and low self-esteem in adolescent girls and boy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5(4), 539-549.
- Polce-Lynch, M., Myers, B. J., Kilmartin, C. T., Forssmann-Falck, R., & Kliewer, W. (1998). Gender and age patterns in emotional expression, body image, and self-esteem: A qualitative analysis. *Sex Roles*, 38(11), 1025-1048.
- Portingale, J., O'Reilly, M., & Bennett, A. (2024). Daily bi-directional effects of women's social media-based appearance comparisons, body satisfaction, and disordered eating urges.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2, 37. <https://doi.org/10.1186/s40337-024-01096-8>
- Quittkat, H. L., Hartmann, A. S., Düsing, R., Buhlmann, U., & Vocks, S. (2019). Body dissatisfaction, importance of appearance, and body appreciation in men and women over the lifespan. *Frontiers in Psychiatry*, 10, 864.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oberts, A., Cash, T. F., Feingold, A., & Johnson, B. T. (2006). Are Black-White differences in females' body dissatisfaction decreasing?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6), 1121.
- Rosenbaum, D. L., Gillen, M. M., & Bloomer, S. A. (2024). *The effects of sleep on body image: Examining the roles of depression, perceived stress, and anxiety.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72*(9), 3662-3670.  
<https://doi.org/10.1080/07448481.2023.2186153>
- Rosenberg, M. (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Revised ed.). Wesleyan University Press.
- Sala, M., Linde, J. A., Crosby, R. D., & Pacanowski, C. R. (2021). *State body dissatisfaction predicts momentary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but not weight control behaviors: An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study. Eating and Weight Disorders-Studies on Anorexia, Bulimia and Obesity, 26*(6), 1957-1962.  
<https://doi.org/10.1007/s40519-020-01048-6>
- Sharpe, H., Patalay, P., Choo, T. H., Wall, M., Mason, S. M., Goldschmidt, A. B., & Neumark-Sztainer, D. (2018). Bidirectional associations between body dissatisfa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from adolescence through early adult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0*(4), 1447-1458.
- Solomon-Krakus, S., Sabiston, C. M., Brunet, J., Castonguay, A. L., Maximova, K., & Henderson, M. (2017). Body image self-discrepancy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60*(1), 38-43.
- Stice, E., Hayward, C., Cameron, R. P., Killen, J. D., & Taylor, C. B. (2000). Body-image and eating disturbances predict onset of depression among female adolescen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3), 438.
- Stiles, D. L., Ma, L., Fitterman-Harris, H. F., Naseralla, E. J., & Rudolph, C. W. (2023). *Body dissatisfac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 quality: A meta-analysi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40*(6), 1706-1739.  
<https://doi.org/10.1177/02654075221128504>
- Swami, V., Frederick, D. A., Aavik, T., Alcalay, L., Allik, J., Anderson, D., Andrianto, S., Arora, A., Brännström, Å., Cunningham, J., Danel, D., Doroszewicz, K., Forbes, G. B., Furnham, A., Greven, C. U., Halberstadt, J., Shuang Hao, Haubner, T., Choon Sup Hwang, ... Zivcic-Becirevic, I. (2010). The attractive female body weight and female body dissatisfaction in 26 countries across 10 world regions: Results of the International Body Project I.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3), 309-325.  
<https://doi.org/10.1177/0146167209359702>
- Swann, W. B., Jr. (1983). Self-verification: Bringing social reality into harmony with the self. In J. Suls & A. G. Greenwald (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Vol. 2, pp. 33-66). Erlbaum.
- Tan, J. J., Kraus, M. W., Carpenter, N. C., &

- Adler, N. E. (2020). The association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and subjective well-being: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6(11), 970.
- Thompson, J. K., & Thompson, C. M. (1986). Body size distortion and self-esteem in asymptomatic, normal weight males and femal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5(6), 1061-1068.
- Tiggemann, M. (2005). Body dissatisfaction and adolescent self-esteem: Prospective findings. *Body Image*, 2(2), 129-135.
- van den Berg, P. A., Mond, J., Eisenberg, M., Ackard, D., & Neumark-Sztainer, D. (2010). The link between body dissatisfaction and self-esteem in adolescents: Similarities across gender, age, weight status, race/ethnicity, and socioeconomic statu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7(3), 290-296.
- Wilcox, S. (1997). Age and gender in relation to body attitudes: Is there a double standard of aging?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4), 549-565.
- Wichstrøm, L., & von Soest, T. (2016). Reciprocal relations between body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 large 13-year prospective study of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47, 16-27.
- Wylie, R. C. (1974). *The self-concept: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d topics* (Vol. 2).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You, S., Shin, K., & Kim, A. Y. (2017). Body image,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Korean adolescents. *Child Indicators Research*, 10, 231-245.
- 1차원고접수 : 2025. 10. 15.  
심사통과접수 : 2025. 11. 03.  
최종원고접수 : 2025. 12. 30.

## Links of Body Image Satisfaction with Self-Esteem and Depression: A Three-Way Moderation by Gender and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Seokmin Kwon

Jongan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Body image satisfaction is often linked to psychological well-being, especially among women, yet recent work suggests smaller and demographically contingent gender differences. We tested whether associations between body image satisfaction and self-esteem/depression vary by gender and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SSS). Adult men and women ( $N = 543$ ) reported body image satisfaction, self-esteem, depression, and SSS. Body image satisfaction correlated positively with self-esteem and negatively with depression. Notably, three-way interactions (Body Image Satisfaction  $\times$  Gender  $\times$  SSS) were significant, indicating moderation: among women, higher SSS strengthened the positive association with self-esteem and the negative association with depression; among men, higher SSS attenuated these link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connections between body image satisfaction and well-being depend jointly on gender and SSS, refining theory on when-and for whom-body image relates to well-being.

*Key words* : body image,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depression, gender differences, moderation